

추경·청문회 삼킨 '우병우 블랙홀'

더민주 "禹 국회 출석 시킬것" 정의당 "野 특검 공동안 마련" 야권 사퇴 압박 전방위 공세 여는 갑론을박 내부정리 안돼

검찰 수사를 앞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 야권은 일제히 사퇴를 요구하며 전방위 공세를 폈다. 특히,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 의혹을 위협으로 규정한 것을 놓고는 "비리 몸통을 감추기 위한 겉다리 겹기", "식물정부를 자초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맹공을 이어나갔다

반면, 새누리당은 우 수석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연일 주장이 엇갈리면서 '불협화음'이 표면화되는 등 갈피를 못 잡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정수석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흔들려야 하는지, 박 대통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우 수석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며 "우병우·이석수 두 분 모두 출석 시켜 현안을 점검해보자"고 제안했다.

국회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비대위 회의에서 "우 수석은 민정수석 완장을 띠어 하고, 검찰은 검찰에 걸린 '우병우 사단'에 수사를 맡기지 말고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호미로 막을 수 있던 개인비리 의혹을 정권의 명운을 건 싸움으로 변질시켜 게이트로 키우고 있다"며 "식물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자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서 부르면 가겠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한 직무상 기밀누설 의혹과 관련, “검찰에서 부르다면 나가서 적절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우병우 수석 특검에 대한 야3당 차원의 공동안을 마련하고 특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공동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투 톱’인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은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사퇴론과 옹호론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찰내용 유출 의혹을 받는 이

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검찰 출신의 김진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우 수석 사태에 대해 “아직 제대로 된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 수석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돌을 던지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정권 흔들기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4선 중진의 정우택 의원은 KBS 라디오 출연에서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현직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 법무부, 검

찰 등을 관장하는 업무를 갖고 있는데 검찰수사를 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 본인이 스스로 거취 문제를 판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이정현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우 수석 및 이감찰관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김광립 정책위의장 등이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대통령, 안보행보로 난국 돌파

禹 사태 함구...을지 국가안정보장회의·국무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안보행보’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2016 을지연습’이 시작된 22일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정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했으나, 우 수석 문제에 대한 코멘트는 물론 정치적 함의를 담은 발언도 하지 않았다.

회의 성격상 이번 사태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는 했지만, 정치적 위기 때마다 정면돌파를 해온 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직접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박 대통령이 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직접 메시지를 자제한

것은 이미 청와대발(發)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인 청와대 입장문을 통해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언론 유출’ 의혹을 공개 비난함으로써 우 수석을 안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번 논란에 직접 발을 담그기보다는 안보와 민생을 기조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 수석 거취문제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 수석도 이날 국무회의에 출석해 정상업무에 수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정현 “감사기관 고압적 관행 개선”

수원 병원 방문 현장 청취...“개선 방안 발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감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감사·조사기관의 고압적인 조사 관행을 뜯어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전날 경기도 수원외 한 병원을 방문한 이 대표는 의료협회 관계자들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들었으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회 주최 추모대회와 현지조사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밀집모자와 회색 점퍼 차림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



타난 이 대표는 행사장 뒤편에 조용히 앉아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조사·감사기관이 겁박할 게 아니라 사전 계도 등을 통해 미연에 사건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조사기관의 수장을 당으로 불러 당정책회의를 열고 해당 기관이 스스로 개선방안을 발굴하되,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기간 관련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실종 된 협치...점점 못찾는 추경

새누리 정권핵심 이슈 타협 거부...더민주 3당 합의 파기

국민의당 중재안 안먹혀...3당 구조 ‘협치’ 걸림돌 우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연계해 양보없는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원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제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민생을 위한 협치를 강조했던 여야 3당이 기존에 합의했던 추경안조차 약속한 날짜에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20대 첫 정기국회도 민생은 뒷전으로 밀린 채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기획재정부위원회와 정부위에서 나눠 실시한다는 3당 간 합의를 뒤집고 ‘연석 청문회’ 개최를 주장,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여권 실세인 최경환 의원(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

하면서 이를 추경안 처리와 직접 연계한 것도 협상력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야 원내 제1당으로서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할 새누리당 역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권 핵심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을 거부, 이번 사태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은 쟁점 증인 채택은 추후 협의하고 추경 심의부터 조속히 정상화하자는 ‘중재안’을 던져놓았지만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처럼 여야 3당이 정치력의 빈곤을 드러내면서 ‘3당 구조’가 협치의 ‘시발점’이 아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민들의 가까운 시선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여야 3당도 결국 이달 31일까지인 8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극적으로 점점을 찾을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26일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무성 중국 방문...통일 세미나 참석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22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중국 옌벤(延邊)대에서 열리는 ‘통일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남북문제에 대한 비전 제시와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 방문은 대권 주자에게는 통과 의례처럼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점에서 김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나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특히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 김 전 대표의 이번 방문은 의미가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